

## 설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

안녕하십니까? 즐거운 설입니다.

고향 가는 길,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? 조금 막히고 힘들어도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 계실 겁니다. 그간 자주 뵙지 못한 어르신께 세배드리고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이런 때 더욱 긴장하고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국군장병과 경찰관, 소방관, 그리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디에 계시든 설날 아침 떡국만큼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

국민 여러분,

올 새해에는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? 부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

국가적으로도 올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우선 우리 경제가 지난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 특히 서민들도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이 크게 줄어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.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.

날씨가 춥습니다.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하는 훈훈한 설 되시기 바라며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감사합니다.